

## 특목고 없는 지역 중 수능 고득점자 비율 광주 서구 5년째 전국 최상위권

### 남구도 20위권내 진입

광주시 서구가 전국에서 특목고가 없는 지역 중 강남 3구를 제외하곤 수능 성적 우수자(1~2등급)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일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학년도 232개 시·군·구 학생들의 수능성적 등급별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목고가 없는 지역 중에선 광주 서구가 유일하게 매년 1~2등급 비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서구는 지난 5년간 외국어와 언어, 수리나 영역 등 3개 영역(5년간 3개 영역 총 15회) 중 11차례나 전국 20위권 내에 들었다. 이는 특목고가 없는 지역 중 강남 3구를 제외하곤 최고의 성적이다.

특목고인 광주과학고 외엔 자립형 사립고와 기숙형 자율학교 등이 없는 광주 남구도 매년 전국 20위권 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의 성적을 낸 광주가 고득점자 비율에서도 높은 성적을 올린 비결에는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 정책과 학교간 선의의 실력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65개 고교 중 42개교에 이르는 사립학교간

'명문고' 싸움은 치열할 정도다.

인순일 시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게 높은 성적으로 이어진 듯 하다"며 "일선 교교들의 실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만큼 입학시에서도 전국 최고의 성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 과목에서 강남권과 특목고가 위치한 지역의 1~2등급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어 영역의 경우 1~2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근 5년간 전국 평균이 11%인데 비해 ▲강남·서초 및 특목고, 자율학교가 있는 지자체 상위 20곳의 평균은 18.9%에 달했다.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에서도 전체

평균이 각각 11.3%와 10.2%인데 비해 강남·서초 및 특목고, 자율학교가 있는 지자체 상위 20곳의 평균은 각각 17.1%와 17.7%로 높게 나타났다.

1~2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의 경우 광주 서구와 경기도 광명 등을 제외하면 ▲강남 3구에 속해 있거나 ▲특목고, 자사고, 기숙형 자율학교가 있는 지역이다.

권 의원은 "특목고와 강남권의 수능성적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입시를 통한 학벌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가을 재촉 비 내일 44년만의 '9월 황사'

2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44년만의 '9월 황사'가 예상되는가 하면 일교차도 커, 한 주간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겹 겹"이라고 20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0mm.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푹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2~24도로 전남보다 다소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아닌 황사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내몽골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을 따라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 22일 오후부터는 광주·전남지역도 황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9월 중 황사는 지난 1965년 9월 6일 목포와 제주도에서 관측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호기자 khh@

## 기능경기대회 기념 '건강 레이스'



기능인력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광주일보가 주관한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건강경기대회가 20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5천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스타트 총성과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 관련기사 2·19면

/\*광주소방행기=위지량기자 jrwi@

## 오늘·내일 '정운찬 청문회'

### 여야 격돌 예고

인사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1~22일 이를 동안 열린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청문회와 인준투표의 결과는 오는 10월 재보선 등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총리지명 정 부정책을 비판해온 정 후보자의 국정 철학을 비롯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 위장전입과 병역, 논문 이중 게재, 세금 탈루 의혹을 포함한 각종 도덕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가 상징하는 '중도실용'의 허구를 부각시키는 한편으로 각종 도덕성 시비를 낚아막아 파헤쳐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버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

시 문제와 총리 인준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내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당의 흠집내기식 공세를 철저히 차단, 이명박 정부 집권 2기의 중도실용 드라이브와 국정 장악력 확보를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인에서 여야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래식**  
정국경 / 단정 / 조식당 / 정국당  
가정용·업소용 판매  
010-381-9893  
010-6586-000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토머스 슈로퍼 작 '소쇄원은 순수한 정신의 공간이다'

## 비율수록 채워지는 '공간의 미학'

세계 디자인의 향연인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난 18일 개막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더할 나위 없는-The Clue'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 등 48개국에서 519명의 작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역동적인 현대 디자인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을 소개한다.

미 하버드대 토머스 슈로퍼 건축학과 교수가 담양 소쇄원을 현대적인 건축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대숲, 계곡과 조화를 이룬 소쇄원의 형상을 대나무를 소재로 가로·세로·높이 각 2m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조명을 비추면 대나무를 엮은 틈새로 빛이 들어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엔날레전시실 2전시실 '집'(住) 색션에 출품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모레퍼시픽 한물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와 조화와 균형 상태인 '물리'를 구현하기 위한 한물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특별한 서비스**

- 1인 1실 케어
- 한방 화장을 한물 전용 사용
- 급수제독순수채 피사차
- 아모레퍼시픽 뷰티호텔로
- 도 카시탈 차량기능